



오인회 소식

2016. 3월(제54호)

권두언 卷頭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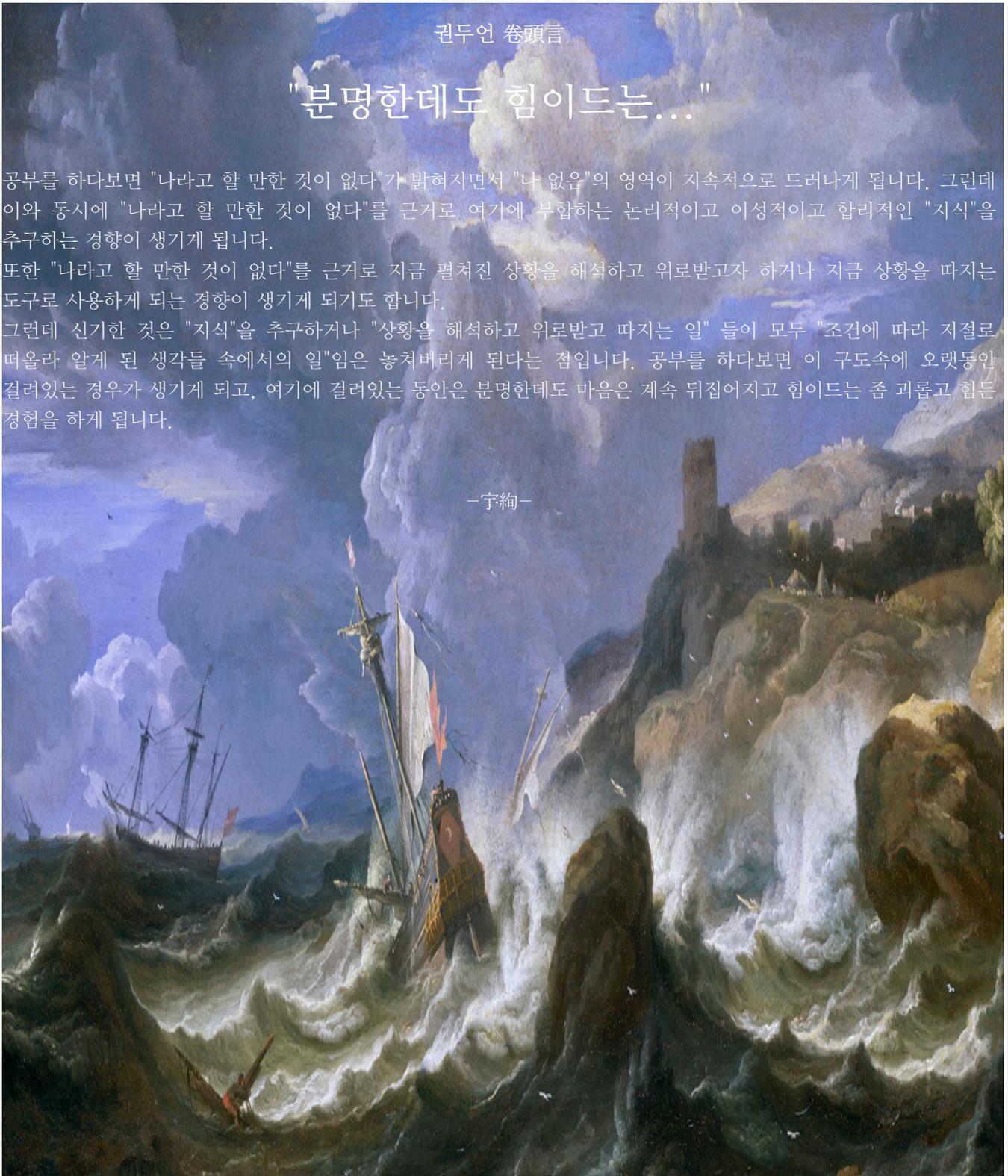
"분명한데도 힘이드는..."

공부를 하다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가 밝혀지면서 "나 없음"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를 근거로 여기에 부합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를 근거로 지금 펼쳐진 상황을 해석하고 위로받고자 하거나 지금 상황을 따지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식"을 추구하거나 "상황을 해석하고 위로받고 따지는 일" 들이 모두 "조건에 따라 저절로 떠올라 알게 된 생각들 속에서의 일"임은 놓쳐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이 구도속에 오랫동안 걸려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걸려있는 동안은 분명한데도 마음은 계속 뒤집어지고 힘이드는 좀 괴롭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宇絢-



주역周易강의 신청 안내 -越因-

4월 둘째 주부터 진행되는 주역강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역강의는 최소한 6개월은 참여해야 기본사항이 터득되고 그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깨어있기”가 음양(陰陽)이전의 태극과, 의식 및 모든 현상의 본질인 무극(無極)을 지향했다면, 4월부터 진행되는 주역강의에서는 음양이후, 즉 현상계의 흐름과 법칙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만개(滿開)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분별의 세계가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는지를 물리(物理)와 자연의 흐름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을 돌아보고,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볼 것입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의식현상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서 현상계의 변화 원리와 법칙을 들여다 볼 것입니다.

신체에서 욕구가 일어나면 어릴 때는 그 욕구가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듯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면 ‘일어나는’ 생각을 자신이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몸과 마음과 생각을 타인이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별이 극도에 달하게 되면 흥미롭게도 이제 전환이 일어나 구별없음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운동이 ‘분별을 넘어서는’ 운동으로 전개되어갑니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흐름입니다.

욕구와의 동일시가 좀 더 발전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게만 동일시되던 것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과 사회, 국가와 동일시되어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이라 부르는 몸과 마음을 넘어선 것과의 ‘동일시’입니다. 모든 동일시는 이것과 저것이 나뉘어지고 그중 일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시의 과정이 점차 확대되고 확장되면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인 우주자연과의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동일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도 아닌 불이(不二)의 우주이지요. 그것이 우아일체(宇我一體), 범아일여라고 부르는



체험입니다.

이렇게 ‘자아’와의 동일시 단계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아에 머무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미시적으로 자아를 깊이 탐구하여 그것의 공성(空性)을 깨닫고 전체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거시적으로 동일시의 범위를 넓혀 사회와 자연, 우주로 확대하여 우주와의 동일시를 통해 개별 자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괘의 효사 변화를 통해 비유해보면, 아직 물과 자신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개별적인 자아가 탄생하지 못한 존재는 잠룡(潛龍:잠겨있는 용)입니다. 사물에 잠겨있는 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자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현룡(現龍:나타난 용)입니다. ‘세상’과 ‘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약룡(躍龍:도약하는 용)이니 땅에서 잠시 잠시 뛰어올라(躍) ‘세상’과 떨어질 기세입니다. 이는 자아가 드디어 개별존재로 탄생할 즈음입니다. 그 다음이 드디어 비룡(飛龍:날으는 용)이니 개별자아가 의식의 장(場) 안에 독립적으로 나타나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개별자아는 개인성을 넘어선 곳에 의식의 원천이 있음을 알게 되면 비룡으로서 자아를 잘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에 봉착하여 항룡(亢龍:너무 나아간 용)이 됩니다. 개별성으로 너무 나아간 항룡이 되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를 통해 수정을 해나가면 다시 마음을 고쳐 지뢰복(地雷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동일시를 떠난 도구로서의 ‘자아’로 돌아오니, 이제 그의 의식은 ‘자아’와 동일시하지 않고 근원을 새롭게 인식하여, 자아를 사용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괘는 양효의 발전상황이니, 양효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에너지가 뭉쳐 하나의 레이저처럼 발산하는 모습으로 개별자아가 탄생하는 과정과 닮아있습니다. 이것은 건괘를 마음의 측면으로 본 것입니다.

주역은 64가지 인생의 패턴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삶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64패턴이 오직 고정된 교과서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영상의 한 단편, 입체영상의 한 스틸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64패러는 스틸컷을 통해 그 상징이 보여주는 풍부한 삶의 모습,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삶의 드라마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잠시 사회현상적인 측면에서 거칠게 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중동과 동북아시아라는 가장 긴장된 두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정세는 단순히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핵개발로 카오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뒤에는 미국이,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 자리잡고 이들 두 강국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덧붙여 실질적인 제조업이 거의 사라져 빛더미인 미국의 경제가, 달러화 강세와 무기 판매를 통해 유지되고 있기에, 자신의 유지를 위해 세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의 힘으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얻으려는 의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둘의 충돌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가닥의 짚뭉음이 꼬여 그 둘 사이의 긴장상태가 동북아 정세라는 팽팽한 새끼줄을 만들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남북한이 충돌하고 있는 듯 하나 두 가닥의 실제 힘은 뒤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고, 그 접측면이 남북한인 상황과 같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전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끼줄의 비유는 지난 소식을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가닥의 서로 저항하는 짚뭉음이 없다면, 새끼줄이라는 긴장된 동아줄은 존재할 수 없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두 가닥이라는 짚 뭉음의 모습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의식의 '나'와 '대상'이 동시에 상호의존하며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배반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음양의 관계입니다.

동북아의 현 상황을 괘(卦)로 뽑아보니, 한반도 입장에서 택수곤(澤水困)의 괘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져 곤경에 빠진 모습입니다. 물(水 ䷜)은 아래로 빠져나가고 그 위에 텅 빈 연못(澤 ䷺)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곧 연못의 핵심인 물이 없는 상태가 택수곤(澤水困)입니다. 이는 물이 빠져나간 연못을 상징하는 괘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자리까지 나아갔으나, 그의 알맹이가 없어 힘겨운 자리에 처해있는 모습입니다. 즉, 전체를 조화로 이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둠은 곧 새벽을 몰고 오는 징검다리이기에 상황은 늘 같지 않고 변해갑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는 주변 상황을 잘 관찰해 반응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64괘중 가장 조화로운 괘는 상괘와 하괘가 서로 교류하는, 수화기제(水火既濟)와 지천태(地天泰)입니다. 두 괘 모두 위에는 음성(물과 땅)이, 아래는 양성(불과 하늘)이 있어 하강하려는 음성과 상승하려는 양성이 서로 교류하는 모습입니다. 즉 균형 잡힌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사업이나 일이 시작됨을 상징하는 수뢰준(䷆) 같은 경우에는 상괘가 물(水)로서 -3이라는 하강력(이런 힘의 계산이 나오는 이유와 법칙은 강의에서 설명합니다)을, 하괘는 우레(雷)로서 +1이라는 상승력을 지니는데, 하괘의 상승력이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하가 교류하는 모습을 띕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지요. 그리고 수뢰준에서는 음효인 3효(아래서 3번째 효)만 양효로 바뀌면 수화기제(䷾)가 되어 가장 조화로운 상황으로 변화하며(왜 이 괘가 가장 조화로운 움직임 속에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뢰준 괘는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에 반해 택수곤(䷮)은 64괘 전체의 '지향점'인 지천태나 수화기제로 가기에는 효들 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그 변화에 대해서는 택수곤 괘 강의에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난관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어두울 때가 또한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임을 주역은 일깨워주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곤란을 넘어가는 길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그것은 효 하나하나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듯이, 주역의 64괘는 현상계의 태극인 수화기제나 지천태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가장 조화로운 괘이기 때문입니다. 기제(既濟)괘는 음양의 활동력이 최고의 조화를 이룬 모습이고, 태(泰)괘는 가장 안정되고 태평한 괘입니다. 따라서 64괘중 현재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괘를 알면, 그 괘턴이 조화로운 태극으로 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게 주역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자연현상에 대비해보고, 원자나 분자 같은 물리적 성분들의 존재상태와 비교하며, 마음의 움직임도 꿰뚫어보면, 더 정밀한 현상계를 통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주변의 관계, 사회의 흐름과 지구 전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밝은 아름다움으로 채울지 발견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역周易강의 참가 요건

- . 참가자격 : 깨어있기 수강자
- . 참가비 : 기존 오인회 참석자는 무료, 2개월 이상 오인회 모임에 빠졌던 분들은 40만원, 새로 참여 하시는 분들은 60만원(최소 참여 기간인 6개월간 참여비이며, 그 이후로는 서울 사무실과 함양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 참가비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원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료가 있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달 10만원씩 내셔야 합니다).
- . 강의시간 : 현재 잠정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30~8:30까지 잡고 있으며, 참가신청자들과 상의하여 요일 및 시간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자신에게 편한 시간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없으면 화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 . 참가방법 (4월 5일까지 신청해주세요)
 - 서울 : 서울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 함양부근 : 함양 수련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 기타 지방 : 원격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와 마이크, 이어폰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미리 준비하여 사무실에 접속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02-747-2261 현이(참가신청), 연우(컴퓨터 접속 방법)
- . (참가비입금처- 농협:352-0406-2453-93 이원규)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현이님)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대승기신론 강의 1권 출판비용 : 450만원 완료, 2권 출판비용 : 450만원 / 현재 후원액 10만원)
 우현 10만원(15.11.24) 무연 10만원(15.11.24) 기보 100만원(15.11.25) 광주나무 10만원(15.11.25) 우현 10만원(15.11.30) 썬이 10만원(15.11.30) 고을 10만원(15.12.2) 목어 10만원(15.12.3) 화동 10만원 (15.12.3) 허유 100만원 (16.1.12) 고을 90만원 (16.2.3) 칼라 50만원 (16.3.8) 자연(김선희) 10만원 (16.3.24) 나무 10만원 (16.3.28) 아무개 10만원(12.11) 드랜 10만원 (12.16)

20차 나와의 소통 3박4일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연습 중심으로 짜임새를 새롭게 하여 미내사 함양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우현님의 '나와의 소통' 3박 4일 프로그램이, 오인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1월말 파일럿 수업의 열기를 이어가 2월에도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여기 21-2호에서 그 뜨거웠던 나눔의 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21차 일정은 6월 4일(토)부터 3박4일간 진행됩니다. 오인회 회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38차 깨어있기 기초 과정이 4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심화 과정이 5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청년 백일학교 후원방식
 2년 운영후원 : 300만원(일시불) 2년 일시후원 : 120만원(일시불) 2년 24회 후원 : 120만원(1달 5만원)
 1년 일시후원 : 60만원(일시불) 1년 12회 후원 : 60만원(1달 5만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 : 02-747-2261 (현이님)

청년백일학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후원액 5835만원, 사용액 3750만원 잔액 2085만원)
 초현 1300만원, 천강 1300만원, 구당 1000만원 지원 300만원, 우현 300만원, 고을 300만원,
 기보 300만원, 화동 120만원, 허유 120만원, 무연 120만원, 나무 120만원, 바람 120만원 (11.17,12.17,1.16,3.19,4.29,11.30) 문수홍 60만원, 광주나무 60만원, 아름드리 60만원, 토인 60만원, 썬이 60만원 (3.12, 1.30), 디테60만원 (11.20,12.22,1.20,2.23,3.20,4.20,5.20,6.22,7.20,8.20,9.21,10.20,) 솔내음 65만원 (2.25,3.25,4.27,5.26,6.25,7.27,8.25,9.25,11.25,12.27,1.25,2.25,3.25) , 도빈 10만원



존재로서 이미 충만하다 자형 인터뷰(1)

자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에 관심이 많았고 한 번 사는 인생, 다 걸고 해볼만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다 20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며 찾은 답이었던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서 7년간 활동하다 작년에 정리하고 나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대학원 공부를 하던 중 미내사 뉴스레터에 백일학교 모집글을 보고 백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백일학교 졸업 후 미내사 함양수련원에서 관성학교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일학교 생활을 통한 통찰과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편 : 자형님은 처음 미내사 클럽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자 : 저희 아버지가 미내사클럽에서 발간하는 잡지 ‘지금여기’를 구독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창기 때부터 보셨던 것 같고, 창간호 버전이 집에 있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영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지금여기 잡지를 종종 읽었어요. 집에 항상 있으니깐. 그런데 그 내용이 흥미롭고 깊이가 있어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관심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재작년에 생각이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때 회원가입도 하고 뉴스레터를 신청을 했구요. 그 시기부터 좀 더 가깝게 개인적으로 소식을 받아 봤습니다.

편 :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됐군요.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자 : 아버지께서 영성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종교도 불교, 기독교 등 여러 곳을 다니며 공부하셨고 그 이후부턴 기수련을 오래 하셨어요. 뇌교육, 뇌과학 쪽에 관심 많으시고요. 하지만 아버지 교육관이 이게 좋으니까 이걸 꼭 해라 라는 주입식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다만 관련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성장했죠.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훈을 알아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 가훈을 여쭙보니까 흥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가훈을 물어보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보통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 왜 이렇게 별나고 유난스러운 가훈인지 속으로 좀 툭툭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가풍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 :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미내사클럽 회원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여기 잡지를 접할 수 있었는데 20대에 들어서 관심이 부족 늘어났다는 건가요?

자 : 그렇다기보단, 그 전엔 잡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집 책장에 꽂혀 있었던 수많은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서적 중 하나였었죠. 그런데 2, 3년 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홈페이지를 찾아보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첫 시작이었어요.

편 : 그런데 어떻게 2, 3년 전에 문득 생각이 나지요?

자 :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물론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된 계기는 있었죠. 그 시기에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비슷한 단체들을 알아보다가 미내사클럽이 떠올랐어요.

편 : 그러면 자형님이 일하던 단체도 이런 정신세계와 관련된 단체였나요?

자 : 네, 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사회생활 시작했던 20대 초반부터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찾았어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뭐든지 하면 곧잘 했지만 어떤 분야에서 대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의미가 없게 느껴졌달까요. 그보단 성장에 관심이 많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큰 방향성은 성장이었어요.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육체로만 정의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지구에 왔다는 것이었죠. 제가 속해 있던 단체는 그러한 고민과 성찰 중에 만난 곳이었고 20대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편 : 백일학교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 : 2, 3년 전에 미내사 홈페이지에 가입했고 그 이후에 제 이메일로 뉴스레터가 매달 왔었어요.

거의 확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작년 6월에 이메일을 확인하다 미내사 뉴스레터를 클릭했어요. 맨 상단에 백일학교 모집 글이 있더라구요. 사실

저는 미내사클럽이 지금 여기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단체라는 것 외에 제대로 아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백일학교 모집글에 대한 글을 읽다

제목 : 내 생애의 여파를 경험해보고 싶은 또 그 경험해보고싶다



보니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일정을 보니까 입소일이 바로 그다음 주더라구요.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생활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했던 터라 백일학교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좋은 곳 같지만 가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다음날 대학원 수업 준비를 하는데 다시 백일학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백일학교 모집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백일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고민하다 신청서를 넣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을 퇴직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던거예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어요. 백일학교는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구요. 그렇게 결정하고 신청서를 넣었고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백일학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편 :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공부를 한 건가요?

자 :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 영적 성장과 완성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수행과 더불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일을 했어요. 개인 수행으로는 명상, 절수련, 진동 수련, 호흡을 했고 제 개인적인 기준(예고)를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하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부딪힘이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더 온전히 몰입하게 되었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의 본성을 밝히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어요.

편 : 그러면 그 단체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요?

자 : 말하자면 긴데, 짧게 정리하자면 그 당시에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곳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제 삶을 관통하는 강한 흐름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흐름의 실체를 백일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발견했어요.

음, 영적 완성을 위한 마음공부 첫 시작부터 쪽저의 중심이었던 기준은 온전한 사랑, 명백한 진리, 조건 없는 진실함이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방향을 이끌었던 큰 주제였기도 했었고요. 그 기준들을 중심으로 공부가 흘러갔고 시기에 맞게 마무리 되었어요. 개인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이라 이정도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편 : 그이후로 미내사클럽을 새롭게 접하면서 백일학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군요. 백일학교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였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자 : 네, 백일학교 생활을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온전함,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일학교에 온 첫날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느낌은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충만감이었어요. 조건 없는 충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 속에서

저의 주제들을 품고 탐구하고, 안내받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어요.

편 :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체험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자 : 일단 이곳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감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감지란 이름과 생각 없이 외, 내부의 느낌들을 느끼는 건데요. 100일간 감지 연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느낌에 깨어있는' 생활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나름대로의 통찰도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편 : 백일학교에서 삶 자체, 충만한 삶에 대한 느낌이 컸다고 했는데 존재로서의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생소할 것 같아요. 존재로서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자 : 네, 제가 느끼는 느낌들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생소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말해보자면, 백일학교의 생활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삶의 양식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확연히 느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삶의 양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나 할까요. 무언가를 함으로써 인정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충분한 거예요. 충만하고, 그걸 백일학교 입학한 첫날 백일학교 식구들과 아침 산책하면서 느꼈어요. 존재로서 충분하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감사함을 가득 담아 주제일기를 작성했던 기억이 나네요.

편 : 첫날에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 그 이후에도 꼭 그런 느낌이 계속 되었나요? 백일학교에 있다 보면 해야 될 일도 있었을 거고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됐을 텐데 그럼 사실 사회생활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럴 때도 존재의 충만함이 계속 느껴지고 유지가 되었나요?

자 : 무언가 일을 한다는 측면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백일학교에서 배우는 핵심 중의 하나가 이유 없는 정성이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정성을 들일 줄 알아야 이유 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원리를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이유 없이 어떻게 그냥 하나, 그렇게 하면 대충, 책임감 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백일학교 생활하면서 이 주제가 제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어요.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체험한 순간은 잡초를 뽑으면서였어요. 보리수관 앞에 잔디가 있는데 이곳의 잡초가 매일 뽑아줘야 할 정도로 무수히, 빠르게 자라요.

어느 여름날 뜨거운 태양 아래 잡초를 뽑고 있는데 그 날 주제가 '실시간으로 느낌에 깨어있기'였어요. 잡초를 열심히 뽑고 있는데 순간 저의



관성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빨리 뽑고 다음 일을 하자'라는 것이 내면의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은 '잔디 뽑는 일은 생산적이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는 내면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것을 발견한 후 그 즉시 다른 종류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 가치라는 것이 실제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그런 믿음과 생각, 기준들에 사로 잡혀서 스스로를 상황에 쫓기게 하고 매순간 온전히 존재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니까 이유 없이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10분 단위로 시계를 보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지루해했는데 이유 없는 정성을 들이며 몰입하니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던지. 순간의 달콤함을 그 때 체험했어요. 이런 이유 없는 정성이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백일학교에 들어온 첫날, 존재로서의 충만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유 없는 거죠.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대충, 의미 없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아주 진하게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편 : 백일학교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 충만감이 계속될 것 같아요?

자 : 네, 원리를 터득했다고 할까요. 그런 원리가 생활 깊숙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느낌, 감정은 제 마음의 믿음과 기준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어쩌면 상황이 더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마음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 :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마음의 충만감은 깨지지 않을 것 같더라는 건가요?

자 : 네, 저는 백일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도 삶에서 일이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나 감정적인 문제들은 없었어요. 물론 부딪힘은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모두 제 에고적인 기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내면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내려놓는 훈련을 했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안좋은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감정의 뿌리에 있는 기준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기준들을 보는 거죠. 이 때 이 작업은 스스로에게 아주 진실해야 해요. 그래야지 표면적인 기준과 이유들이 아닌, 숨기고 싶은 어쩌면 부끄럽고 못난 모습의 기준들을 직시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직시할 수 있는 중심 원리는 어떤 에고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든지 바라볼 수 있었고 정말 핵심적인 기준을 바라봤을 땐 그것이 그냥 힘없이 사라짐을 체험했어요. 그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위들이 멈췄던 거죠. 그러나 이때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그 에고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주체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백일학교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무엇이든 수단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 또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발견한거예요.

편 : 그러면 그 전에도 자기의 기준을 보는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 네. 그 전에 있었던 곳에서도 원리가 있었어요. 원리, 수행, 생활 공부라는 3대 원리가 있었는데 원리를 통해 바른 기준을 세우고 수행을 통해 본성을 밝히고 생활을 통해 업을(우리식으로는 관성) 닦는 식이었죠. 그런데 제가 했던 방식의 원리는 아니었어요.

경전에 나오는 것 같은 큰 흐름의 원리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전 동서양 관계없이 영성관련 책들을 읽고 생활에 적용해보고 가까운 도반들과 나누는 식으로 내면의 탐구는 저만의 방식으로 공부 해왔어요.

편 : 자형님은 깨어있기 강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깨어있기 강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나요?

자 : 깨어있기는 백일학교 생활 중에 참여했어요. 백일 학교 중에는 기초 심화 두 번씩 참여했고 졸업 이후에 함양에서 생활하면서도 강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백일학교 생활이 주제를 품고 감지와 느낌에 깨어있는 것이지만 2박 3일 깨어있기 강좌에 참여할 때에는 더 집중적으로 감지와 믿음, 기준에 대해서 섬세하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편 : 백일학교나 깨어있기 강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지는 중요한 주제가 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감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 네, 감지예요. 전 이곳에서 컵을 예시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대상에 대한 감지는 (컵을 들며) 컵을 봤을 때 대상에 경계를 그리고 이름과 생각을 지우고 질감과 시각적인 자극에 초점을 맞춰서 느끼는 거예요. 이건 컵이야, 이것은 내가 아끼는 거야 등의 이름이나 생각에 주의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원래부터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모두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다'라는 개념과 믿음이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편 : 그런 감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자 : 음.. 많이 하는 거요? (웃음) 저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깨어있기 강좌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분들이 탐구하면서 발생하는 장애 중에 하나가 '감지가 잘 안된다', '감지는 어려워', '감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는 것을 봤어요. 물론 생소한 개념이고 늘 생각만을 사용하다가

느낌차원으로 들어가려니 어려울 순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가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냥 또 다시 감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게 감지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지의 깊이도 계속 깊어지는 것 같구요. 감지 연습 방법은 깨어있기 책에도 나와 있고 깨어있기 강좌에 참석하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주잖아요. 대상에 경계 그리고 이름과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느끼는 것은 될 때까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편 : 감지연습 할 때 안내자라든지 진행하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디?

자 : 네,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질문도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 될 수 있는 것인데, 연습을 시작하면서부터 된다가나 안된다는 등의 생각에 빠지는 것은 또 그것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격이니까요. 그냥, 주의 집중해서 꾸준히, 이것이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편 :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파악을 하셨는데 결국엔 감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마음의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편 : 연습과정에서 통찰이 왔다거나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감지와 관련된 경험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 네. 그런 발견들은 주의를 의식적으로 많이 보내고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지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인데 의식화해서 그것을 느끼는 한 단계잖아요.

개인적으로 감지가 선명하게 일어났던 순간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백일학교에서 계속 느낌이 일어나는 것에 주의를 두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잡히면서 저라는 주체와 외부환경이라는 대상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매우 빠른 흐름이어서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느낌들에 깨어있는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그런 의식작용들이 아주 섬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 이미지가 잡혔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했는데 곧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나' 고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천장이나 서랍장 등의 '대상'으로 분별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잠시 잠이 들었다 깨었을 때였는데 몸에 느낌이 없었다가 의식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몸의 느낌도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듯이 몸이라는 경계를 방이라고 치면 그 방에 의식이라는 불이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로서 인식되고, 또 그 몸을 경계로 주체와 대상이 분별 되는거죠. 그렇게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선명한 경험들을 백일학교 생활 중에 종종 했어요.

편 : 그러한 감지에 대한 공부 또는 개인적인 체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감지라는 것이 정말 경험의 흔적이 저장되어 있다가 대상과 함께 나타나서 의식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다채롭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하신 거네요?

자 : 네, 일어난 현상들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기억들과 정보들의 합이라는 것이 그런 체험들을 통해 분명해 졌던 것 같아요.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자형(自炯) : 어디에도 의존하지않는 자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본질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본질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형형한 밝음과 현명함을 마음껏 밝히라.

- 특성 : 밝음과 자유, 이상과 끈기. 현명하며 자유를 추구한다

'선해님의 새로운 이름 뜻풀이'

- 자(스스로 자): 자유란 스스로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I am that I am, 즉 본질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것에 의존한다.

- 형(밝게 빛날 형): 타고난 본성이 밝고 현명하다. 그 현명과 밝음을 '섬세한'지혜로 밝게 드러내라.

-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지혜롭다. 단, 가깝고 세밀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라.

대승기신론(37)- 2013년 1월 29일, 2월 12일 강의

言異相者, 如種種瓦器各各不同, 如是無漏無明隨染幻差別, 性染幻差別故.
언이상자, 여종종와기각각부동, 여시무루무명수염환차별, 성염환차별고.

이상이란, 여러 가지 도자기가 각기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번뇌와 무명이 수염환(隨染幻)에 의한 차별이며, 성염환(性染幻)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이상(異相)이란 여러 가지 도자기의 모습이 같지 않음을 말합니다.

번뇌없음(無漏)과 어리석음(無明)은 수염환(隨染幻)과 성염환(性染幻)에 의한 차별 때문에 생겨납니다. 수염환(隨染幻)은 물들어 분열된 마음이 만들어 내는 환상을 말합니다. 원래는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컵과 접시를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컵과 접시에 대해 배워 마음속에 경계 그려 놓은 마음이 바로 수염환(隨染幻)입니다. 나와 대상이라는 마음의 분열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다층적인 분열상, 즉 수염환(隨染幻)에 의한 차별로 인해 생겨난 것이 번뇌와 무명입니다.

어릴 때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커서 이런저런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마음의 경계에 의한 환상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하여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생기는 것이지, 그 환상이 없는 곳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성염환(性染幻)이란 본성이 물들어서 만들어진 환상을 말하는 것으로 근본(根本)과 지말(枝末)의 무명을 뜻합니다. 불각에 근본불각(根本不覺, 근본을 보지 못하는 것)과 지말불각(枝末不覺,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본과 지말의 불각은 본성이 물들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염환차별(性染幻差別)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차별입니다. 번뇌는 수염환(隨染幻) 때문에 생긴 것이고, 무명은 성염환(性染幻)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일종의 상(相)이라는 것이 동상(同相)과 이상(異相)의 핵심입니다. 그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상(異相)이고, 그러나 모습이 생겨나기 이전의 그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동상(同相)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컵과 접시의 모양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상(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이라는 것도 상(相)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컵과 접시가 같다”는 말은 상(相)입니다. 진흙 자체는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없지만, 컵과 접시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컵과 접시의 본질이 같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즉, 나뉘어 없다면 나뉘어진 그 둘 사이의 ‘같다’라는 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동상(同相)과 이상(異相)은 둘 다 불각(不覺)입니다. “이것과 저것의 본질은 같아”라고 하는 것은 동상(同相) 속에 빠져 있는 불각이고, “이것과 저것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상(異相) 속에 빠진 불각입니다.

이번에는 진리 자체인 진여문(眞如門)과 진리의 또 다른 측면인 생멸문(生滅門)이 있고, 그 생멸문(生滅門)에 심생멸(心生滅)과 생멸인연(生滅因緣)이 있는데 생멸인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復次, 生滅因緣者, 所謂衆生依心. 意. 意識轉故.
부차, 생멸인연자, 소위중생의심. 의. 의식전고.

다음으로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중생이 마음에 의존하여 의(意)와 의식(意識)이 전변하는 것이다.

의(意)와 의식(意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여섯 가지 감각이 있고, 이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작용을 육식(六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본 사물의 형태, 색깔

등이 마음 안에 어떤 흔적 즉 시각적인 감지(感知: 깨어있기 용어)로 남고, 그 흔적들이 사용되어 알고 느끼는 것이 안식(眼識)입니다.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까지는 몸의 감각기관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적인 감지를 쌓습니다. 의(意)도 하나의 감각기관으로서, 쌓여있는 감지를 대상으로 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감지는 한번 쌓이면, 다음번에 쓰일 때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경집을 여러 번 보면 그것이 시각적인 감지로 마음에 쌓입니다. 이렇게 감지가 쌓인 후에 다시 다른 안경집을 보면, 마음 안에 쌓인 그 감지가 주체 역할을 해서 “어! 나 저거 알아. 저 안에 안경이 들어있어.”하며 그것을 안다고 ‘느낌’니다. ‘나’라는 것은 「주체감」과 「경험내용」이 합쳐져서 지금 이 순간에 ‘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몰입한 채로 내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대치되는 내용을 듣게 되면 “어! 저 말은 이상한데?” 하면서 그 순간 과거를 기반으로 한 ‘내’가 나타납니다. 또는 “이게 무슨 말이지?”하며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작용은 늘 같습니다. ‘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거나 또는 모르는 것이 나타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 나타나면 슬슬 나타납니다. 그렇게 내가 과거에 여러 번 봐서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과거 경험」과 「내가 저것을 보고 있다」는 「주체감」이 합쳐져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지(感知: 깨어있기 용어) 자체를 감각하는 것이 ‘의(意)’라는 감각기관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기」를 통해 감지를 발견했죠? 감지 발견 연습을 통해서 의(意)라는 감각기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기능으로 의(意)를 사용했지만 감지 발견 연습 때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사물을 볼 때,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그 사물의 흔적을 본다는 것을 알아챈 거죠. 즉, 감지 연습 때 마음의 흔적인 감지를 감각하는 기관인 의(意)를 사용했던 겁니다.

의(意)는 하나의 감각기관이고, 마음속의 감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것으로 인해 쌓인 식(識)이 의식(意識)입니다. 그것은 눈이 하나의 감각기관이고, 시각적 사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것으로 인해 쌓인 것이 안식(眼識)인 것과 같습니다.

의식(意識)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은, 마음의 한 장(場)에서 주체(나)와 대상(너)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경계 지어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계 지어진 세계를 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 경계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어른처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의(意)를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세계를 경계 지어 나누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본다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어서 그것을 지도처럼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나누어지지 않은 ¹‘세상(世上)’을 나누어진 ‘세계(世界)’로 경계 지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헤매지 않고 편하게 산에 갈 수 있지만, 지도 자체를 산으로 여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나누어지지 않은 ‘세상’을 우리의 편의 때문에 나눠 놓고서 마음의 지도에 표시를 해놨을 뿐인데, 지도에 표시된 산을 실제의 산으로 여기는 것이죠.

의(意)의 작용에 의해 의식(意識)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구르고 굴러서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멸인연(生滅因緣)입니다. 인연에서 인(因)은 내적인 원인, 연(緣)은 외적인 원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멸을 일으키는 인연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타고난 경험의 흔적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서 타고난 것들이 있죠? 수십억 년 동안의 인류의 경험이 세포와 에너지장과 마음의 장에 묻어서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고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7년이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갱신됩니다. 그러므로 손에 생긴 상처가 7년 정도 지나면 깨끗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걸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7년이라면 모든 세포가 바뀌잖아요. 상처를 입은 세포는 이미 옛날에 죽었는데, 새로운 세포가 그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죽어가는 세포가 새로 생겨난 세포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고 간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을

¹ 세상(世上)과 세계(世界) : 이 글에서는 ‘세상’을 인간이 의식으로 나누어 보기 이전 불이(不二)의 존재계로, ‘세계’는 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하게 분별하며 보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세계’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유하자면 땅에는 구분이 없지만 마음이 이를 나누어 경기도와 강원도로 구분해 보는 것과 같다. ‘세상’은 오직 하나의 존재계이지만, ‘세계’는 나무와 물, 꽃, 잎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은 분별해 인식한다.

물들여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더 오래 가죠. 깊은 상처일수록 그 세포에게 더 강하게 각인되어서 정보가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이와 같이 유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부모로부터,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전달되어온 것들을 업(業), 업식(業識)이라고 합니다. 카르마(Karma)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업이 인(因)이 되고, 의식의 장인 마음이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연(緣)이 되어서 그 인과 연이 합쳐져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의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의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잘 표현한 논문입니다. 이전에 강의했던 불각삼상(不覺三相)과 경계육상(境界六相)도 무척 치밀한 설명이었는데, 오늘 내용에는 이것들이 섞여있습니다.

此義云何?

차의운하?

이것은 무슨 말인가?

以依阿黎耶識說有無明, 不覺而起, 能見、能現、能取境界, 起念相續, 故說爲意。

이의아라야식설유무명, 불각이기, 능견, 능현, 능취경계, 기념상속, 고설위의.

아라야식에 의해 무명(無明)이 있다하니 불각(不覺)이 일어나 볼 수 있고, 나타나며, 경계를 취하고, 망념을 일으켜 서로 이어지니 '의(意)'라 하였다.

아라야식(아뢰야식)은 저장식이라고도 하는 업식(業識)을 말합니다. 모차르트가 아주 어린 4살부터 작곡을 한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 어떤 특징들을 갖고 태어나기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업식(業識)에 의한 어떤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 다름을 '개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불각이기(不覺而起)는 각성이 없기에 '마음이 일어난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일어났다고 여기는 것이예요. 바다에 파도가 생겨 표면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물이 변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와같이 불각(不覺)의 마음이 '파도처럼 일어난 마음'을 보고, 그 일시적인 파도를 항구적인 '내가 있음'이 일어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불각(不覺)의 마음인데, 이것은 마음이 각성하지 못하고, 면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나'라는 것이 변함없이 일어나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마음의 일시적인 현상이지 항구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이 '나'는 늘 변합니다. 그럼에도 그 관찰이 면밀하지 못하기에, '변함없는 나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니, 이런 모든 현상은 불각의 마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불각(不覺)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동심(動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심(不動心)이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일까요? 어느 하나의 믿음이 옳다고 여겨서 그것을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不動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동심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되 그것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각심(覺心)입니다. 움직이는 마음은 불각심(不覺心)인데, 이 움직이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파도와 물이 같은 것처럼 각심(覺心)과 불각심(不覺心)은 같은 것입니다.

불각(不覺)이 일어나면 능견(能見)한다고 했습니다. 감각을 사용하는 것은 be seen, 즉 '보여지는' 것이고, 능견(能見)은 can see 즉 '보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마음의 과거 데이터를 투사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불각삼상(不覺三相)'에서 능견상(能見相)에 의해 경계상이 생겨난다고 한 것처럼, 능견할 수 있을 때 드디어 경계가 생겨납니다. 그 후에 분별에 의한 '세계'가 생겨나지요.

잠시 불각삼상(不覺三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각(不覺)에 의해 3가지 상(相)이 생기는데 무명업상(無明業相), 능견상(能見相), 경계상(境界相)이 그것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흔적들인 업상(業相)이 마음의 작용에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흔적들인 감지가 투사되어 볼 수 있게 되는 능견(能見)이 됩니다. ‘이것’과 ‘저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구별한다는 것이며, 그것들 사이에 경계가 그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경계상이에요.

一者, 無明業相. 以依不覺故心動, 說名爲業 : 覺則不動. 動則有苦, 果不離因故.
일자, 무명업상. 이의부각고심동, 설명위업 : 각칙불동. 동칙유고, 과부리인고.

二者, 能見相. 以依動故能見 : 不動則無見.
이자, 능견상. 이의동고능견 : 불동칙무견.

三者, 境界相. 以依能見故境界妄現 : 離見則無境界.
삼자, 경계상. 이의능견고경계망현 : 리견칙무경계.

움직이는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분별이 없는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깨어있기’ 수업에서 무극(無極), 태극(太極), 음양(陰陽)을 얘기했었습니다. 무극에서 태극을 지나 음양으로 나뉘면서 드디어 능견(能見)이 가능해집니다. 음양(陰陽)에 이어 사상(四象), 팔괘(八卦)가 나오고 만물(萬物)이 분화됩니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도덕경에서는 ‘무(無)가 유(有)를 낳고, 유(有)가 일(一)을 낳고, 일(一)이 이(二)를 낳고, 이(二)가 만물(萬物)을 낳는다.’고 말하는데 모두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비학인 카발라(Kabbalah)에서는 신의 명칭을 통해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태극이전의 무극을 유대 신비학인 카발라에서는 아인소프라고 합니다. 아인소프(Ayin-Sof)는 무한(無限)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카발리즘의 신에 대한 명칭으로, 이해를 초월한 전체적 통일체를 상징합니다. 즉 ‘아인소프’는 존재하지 않으며, 측정할 수 없고, 존재 또는 비존재라는 용어로도 전혀 논의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무극의 설명과 참으로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 이후 태극에 해당하는 케테르, 음양에 해당하는 호크마와 비나로 이어집니다. 인도의 케나우파니샤드(Kena Upanisad)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극과 같은 것을 이들은, ‘그곳은 눈으로도, 언어로도, 심지어는 마음으로도 갈 수 없다. 그것은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같지 않으며, 또 ‘알려지지 않은 것’ 너머에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대부분 무(無)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에서 만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비슷한 신화도 많은데 모두 마음이 움직여서 펼쳐지는 모습들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능견(能見) 즉, 마음의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음’이 드디어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존재’케 하는 거죠. 내가 보는 세계는 내 느낌의 세계입니다. 실체가 아닌, 감각기관이 감각한 느낌의 세계예요. 감각 기관이 감각했다는 것은, 그것이 느낌일 뿐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눈을 감고서 어떤 물체를 만졌는데 그 모양이 길쭉하니 바나나 같아서 “이것은 바나나네.”라고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다른 물체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만졌을 때 바나나라고 여긴 것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아주 미세하고 치밀한 ‘시각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낌’으로 경계를 짓고 ‘나누어’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세계는 ‘수많은’ 사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다(見)’가 없는 곳에 경계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불각삼상(不覺三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원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以依阿黎耶識說有無明, 不覺而起, 能見, 能現, 能取境界, 起念相續, 故說爲意.
이의아라야식설유무명, 불각이기, 능견, 능현, 능취경계, 기념상속, 고설위의.

불각(不覺)이 일어나 마음이 '나와 너'로 나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본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능견(能見)입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무엇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무엇을'이 바로 이것, 저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능현(能現)'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발전과정을 첫 강의에서 설명하면서, '나와 대상'이 나타나는 것을 전식(轉識), 그 '대상'이 여러 가지로 모두 구별되는 것을 현식(現識)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대상들을 하나하나 경계지어 구분할 때 비로소 현실이라 부르는 것이 나타난다 해서 현식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본다'가 되면서부터 밖의 사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물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불각으로 인해 '나와 너(대상)'가 생겨나고, 이후 대상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며, 그후 '내가 대상을 본다'는 능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자의 능견과 보이는 능현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A 하나를 볼 때는 경계가 필요 없는데, A가 나타나고 B도 나타나면 A와 B 사이에 경계가 그려져야 하는데 이것을 능취경계(能取境界)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계가 그려지면 각각의 것들에 이름이 붙습니다. A는 안경집, B는 컵,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은 명자상(名字相)입니다. 이름이 붙으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물에 '도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도끼는 도끼날과 도끼자루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도끼를 사용하다 보니 날이 닳아서 새 도끼 날로 바꿔 끼웠어요. 더 사용하다 보니 이번에는 도끼자루가 망가져서 새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도끼는 처음의 도끼가 아닌데도 '내 도끼'라고 이름 붙여 놓으니까 여전히 내 도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相續)되는 것이죠. 거듭된 이름 붙이기가 계속 무언가를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此意復有五種名. 云何爲五?

차의부유오종명. 운하위오?

이 의(意)는 다섯 가지 이름이 있으니 무엇인가?

一者, 名爲業識, 謂無明力不覺心動故.

일자, 명위업식, 위무명력불각심동고.

첫째, 업식(業識)이니, 무명의 힘으로 불각심(不覺心)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업(業)은 쌓여있는 흔적들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는 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즉 무명의 힘이 불각심(不覺心)을 일으켜 업(業)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업(業)을 통해 생겨난 것이 업식(業識)입니다.

二者, 名爲轉識, 依於動心能見相故.

이자, 명위전식, 의어동심능견상고.

둘째, 전식(轉識)이니, 동심(動心)에 의존해 상(相)을 볼 수 있다.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움직이듯 불각(不覺)에 의해 일단 마음이 움직이면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나와 너로 나누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입니다. 마음에 흔적이 생겨나 있으니까 그 흔적을 통해 사물을 보려는 것이 마음이 나와 너로 나뉘는 이유입니다. 동심(動心:움직이는 마음)은 나와 너로 나뉘는 마음을 말하며, 이 동심으로 인해 내가 능견(能見)하게 됨으로써 전식(轉識)이 일어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백일학교 학생과의 만남



惺智 성지

3월 9일부터 제4기 청년 백일학교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기 백일학교는 너머스쿨에서 공부를 함께해왔던 온비님이 백일학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백일학교에서 깨어있기 과정을 배우고 매일 주제를 품으며 탐구를 이어가고 있는 온비님의 이야기 인터뷰로 담아보았습니다.



얼마간 있지는 않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다 보니깐 그게 다르게 적용되어서 소소한 일상이라도 바라보고, 살펴보고, 내 마음의 주제와 연결하는 것이 점점 삶에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백일학교를 표현한다면 나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발견해나가는 공간, 다른 사람들에게 강연을 듣거나 에니어그램 같은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대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가는 즐거움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백일학교는 후원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모르는 도움과 후원으로 여기까지 연결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고요. 배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느낌이 들어요. 월인선생님과 성지님, 도건님, 자형님, 이 안에서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요. 서로의 주제 탐구 과정을 나누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살펴보는 태도를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감사해요.

무엇보다 백일학교를 하면서 달라진 것이라면, 매일매일 주제를 품고 살면서, 산책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제와 연관된 것은 없을까? 하고 물어보게 되고, 살펴보는 것이... 오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풀잎 하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에도(웃음) 예전에는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여기서는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주의를 바라보고... 이런 삶의 깊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살펴보며 매일을 살아가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깨어있기에서 배운 투명한 주의를 계속 살펴보면서 주위의 흐름이 생각으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연습하며 탐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비

백일학교 이야기 - 아침 모임

백일학교는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 각자의 탐구 주제를 통해 살아가며 느끼는 경험과 통찰을 나누며 생활합니다. 아침에는 각자의 하루를 살며 집중할 주제를 나누며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관성학교를 참여하고 있는 자형님의 주제와 탐구를 나눠봅니다.

성 :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 저는 계속 섬세하기 느끼기와 이유 없는 정성을 주제로 탐구했는데요, 이번에 진행한 깨어있기 심화에서 더 깊게 다가왔어요. 모든 것은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라는 것도 근원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동일시에서 분리하여 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계속 제 반응과 흐름들을 보면서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느낌들이었어요.

어떤 순간에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내가 경험한다는 믿음 없이 경험하게 되면 온전하게 그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과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고서 무언가 아쉽고 좋단 마음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 그 마음이 미묘하게 현상을 믿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 준다는 거죠. 아 이게 진짜라는 (현상에 대한)믿음이 기반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실수했어요. '이런 느낌은 일어나면 안돼' 라는 믿음과 느낌이 아주 미묘하게 남아있어서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그거 자체가 그런 생각에 이게 실체라는 아주 미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지게 되니까 주제가 에너지를 남김없이 쓰는 걸로 정리되어졌어요. 에너지가 어떤 동작을 하고 행위를 하고서 끝나면 끝인 거예요. 이후에 뭔가가 남아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월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일을 하고 에너지를 쓰실 때는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 일을 진행하지만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미묘한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녹아날 때까지 한번 계속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 : 네. 마음의 좋고 싫은 느낌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인데, 그렇게 일어나는 미묘한 느낌을 잡고 있는 태도를 바라보는 것은 더 섬세한 동일시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마음에 충돌하고 부딪히는 느낌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파도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나누어진 물살을 살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느껴지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것. 탐구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네요.

자 : 네 그것이 제 마음의 경계더라고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분리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들을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믿고 부여잡는 것이 '나'라는 것임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해요.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